

지·방·소·식

# 도시 주부 절반 남편의 폭력 경험

## 울산 가정법률상담소 조사

도시 주부들의 절반 이상이 남편한테 맞거나 위협당하는 등 신체적 공격을 경험한 일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정 폭력은 남편의 학력이 낮고 직업이 불안정할수록 심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가 울산시내 주부 3백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주부들의 53.92%가 이같이 대답했다.

남편의 폭력 유형으로는 물건을 던지려고 했거나 위협한 사례가 가장 많아 33.7%를 차지했고, 발로 차거나 때림(20.6%), 발로 차거나 때림(16.3%) 등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처음 신체적 공격을 당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내가 1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3개월 이내(15.2%), 5~10년 이내(14.1%), 4~5년 이내(12.1%), 11개월 이내와 1년 이내(각 9.1%) 등 결혼 후 3년까지가 53.9%를 차지했다.

신체적 공격을 당한 이유로는 말싸움 끝에서 43.6%로 첫번째로 꼽혔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23.0%), 술마시면(9.7%) 등이 지적됐다.

남편의 구타 빈도는 몇년만에 한번이 41.8%로 가장 많았고, 연에 한두번이 15.8%, 말싸움만 하면이 10.3% 등 아내구타가 빈번하지 않지만 가정내 잠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내가 구타당한 경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 50대가 6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 60.2%, 30대 51.7%, 20대 39.5%로 연령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였다.

또 학력이 낮은 남편일수록 아내를 때리는 비율이 높아 무학 남편을 가진 아내들은 1백%

모두 맞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국졸 80%, 중졸 72.7%, 고졸 4.7%, 대졸 43.9%의 순서로 이어졌다.

남편의 직업 역시 객관적으로 낮은 서열의 직업일수록 높은 폭력률을 기록해 비숙련직 71.4%, 숙련직 61.5%, 판매직 58.3%인데 비해 사무직 40.6%, 전문직 38.5%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가계소득 3백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72.7%로 가장 높은 구타경험을 밝혀 저소득층일수록 가정폭력이 많다는 기존 인식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족구성형태와 폭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구타경험이 5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시부모와 사는 경우(52.9%)였으며, 친정부모와 살거나(40.0%) 부부만 사는 경우(43.5%) 상대적으로 폭력이 적었다.

신체적 공격을 당한 후 여성들은 31.5%가 이 문제에 대해 친척(44.2%), 친구(36.5%), 이웃(13.5%)들과 의논하거나 상담했다고 말했다.

반면 67.9%의 여성들은 구타 후 의논 및 상담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57.1%), 의논대상이 마땅치 않아(17.0%), 남편체면 때문에(8.0%), 도움을 받지 못해(3.6%)라는 설명.

한편 이러한 가정내 남편의 폭력에 대한 아내의 입장은 아이 때문에(32.1%), 참고 산다(26.7%), 있을 수 있는 일(15.2%), 이혼불사(7.9%)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여성들이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연합통신)

日 報 91.2.16

미국 경찰은 7년전 트레이스 모토치에게 그녀의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이상 남편을 폭력 혐의로 체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를 13번이나 찌르고 목을 부러뜨렸다. 이번에는 경찰과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행위여서 그녀는 마침내 체포돼 14년 징역형을 받았다. 트레이스 모토치 여인이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

코네티컷주 토랜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 15년간 남성에 대한 폭력에 비해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난 미국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례이다.

미연방수사청(FBI)과 법무부가 지난해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여

## 美「매맞는 여성」늘고있다

15초마다 한명꼴...年400萬 추산

議會 공민권침해 규정 刑量높여

성에 대한 폭력 통계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강간죄를 당하는 여성이 매 6분에 1명 구타를 당하는 여성은 15초마다 1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을 막론하는 3백만~4백만명의 여성들이 매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의원이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 통계로 미루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원이나 경찰에 의해서도 견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법체계가 오랜 세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묵과해온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개탄하고 지금까지도 폭력을 휘둘러 배우자에게 피나는 상처를 입히는 남편중 체포되는 경우는 15%도 못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翰論〉